

<서평>

『배제와 포용』

미로슬라브 볼프 지음 / 박세혁 옮김, 강영안 해설

서울: IVP, 2012, 558쪽

이윤정*

1. 들어가는 말

요즘처럼 ‘기생충’과 ‘바이러스’라는 키워드가 핫 이슈가 된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나는 제72회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에 이어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을 비롯 4개 부문을 휩쓴 영화 <기생충>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우한(Wuhan)과 후베이성(Hubei province) 지역으로부터 급속히 확산하며, 국내를 강타하고 전 세계에로의 팬데믹(pandemic) 조짐을 보이고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병) 조짐을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 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영화 기생충의 낭보와 함께 부각된 사회적인 문제의식으로부터,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미치는 코로나바이러스 신드롬으로 온나라가 뒤숭숭하다.

우연치 않게도 기생충과 바이러스 이 둘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둘 다 기생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숙주(피해를 입는 다른 생명체)가 있어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숙주의 내부로 침입하는데 성공해야 살 수 있으며, 숙주 입장에서 이들은 갈등을 제공하는 외부 침입자이기 때문에 숙주의 면역체계와 싸우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기생충이 인간을

* 한국신학정보연구원 부원장 · 연구원

최종 숙주로 삼을 경우에는 그 숙주의 한 부분에 정착하면서 공생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지만(회충), 인간을 중간 숙주로 삼을 경우에는 인간을 공격하여 죽이기도 한다(말라리아 원충). 바이러스 역시 훗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 숙주(박쥐)와의 공생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숙주의 서식지가 침범당하고 포식의 대상이 되어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는 계속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 변종과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새로운 중간 숙주(인간)에게 침입하며 개체 간의 새로운 생존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렇듯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바이러스의 생존을 위한 변이가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이 함께 '상생'(相生)해야 하는 생태계의 팽팽한 균형을 무너뜨리는 순간, 이 생존전쟁은 예기치 않는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감염병들처럼 언젠가 사멸될지, 아니면 공생으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찾아올지 모른다.

자연 생태계의 생존전쟁과 마찬가지로, 영화 <기생충>에서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어떤 사회, 어떤 집단, 어떤 계층이나, 생존을 위한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상극'(相剋)의 갈등은 불평등과 부조리의 단절, 그리고 적대감의 분노로 서로의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양극으로 나뉘는 싸움과 전쟁의 문제상황으로 떠오른다. 이런 갈등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고, 싸움은 죽음을, 죽임 뒤에는 복수가 따르고, 복수는 다시 복수를 불러온다. 갈등의 악순환이다.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같은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정의, 진실(진리), 평화를 기대할 방법은 없는가?

이 책 『배제와 포용』의 저자 불프는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갈등의 악순환 속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고향 땅을 오가며, 근대의 정치철학과 그 프로그램은 실패했으며 포스트모던 정치철학도 대안이 아님을 피력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의 가슴으로 현실을 탄식하며 신학적 고뇌를 시작한다. 동시에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질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성경적 대안을 제시한다.

볼프의 이 책은 1996년에 출판된 영문판이 2012년 IVP에서 우리말로 번역(옮긴이: 박세혁)되어 2018년까지 5쇄를 거듭할 정도로 기독교의 20세기 고전으로 한국 독자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왔으며, 얼마전 2019년 8월에는 개정 영문판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개정 영문판은 여전히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라면, 1부의 성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 제외되었으며, 2부에 이어 25년 후(two and a half decades later)라는 제목의 에필로그와 삼위일체, 정체성, 그리고 자아 내어 주기(Trinity, identity, and self-giving)라는 제목의 부록이 첨가되었다. 이 책은 해설자(강영안)의 말처럼 ‘천천히 조금씩 마음을 집중해서 숙고하면서 읽어야 하는 쉽지 않은 책’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서평에서는 초판과 개정판의 공통 내용인 ‘거리두기와 소속되기, 배제 그리고 포용’의 문제와 본질적인 가치로서 ‘정의와 진리, 그리고 평화’에 대한 관심을 ‘소제목 중심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거리두기와 소속되기, 배제, 그리고 포용

볼프는 1부 1장의 “거리두기와 소속되기”(distance and belonging)에서 종교적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의 두 관계를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살핀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리 두기이며, 어느 정도의 소속되기가 필요한가의 문제 제기이기도 하고, 기독교 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세우는데 있어서 타자에 대한 입장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교회 공동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의 해답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문화를 버리지 않은 채 자신의 문화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갖추기 위한 그의 ‘거리두기와 소속되기’는 한마디로 “버리지 않고 떠나기”(departing without leaving)이다.

이어서 그는 2장에서 “배제”(exclusion)를, 3장에서 “포용”(embrace)의 문제를 다룬다. 2장에서 볼프는 배제가 근대성의 특징인 흡수 통합, 극단적 독립과 같은 “포함”(inclusion)과 연관되지만, 결국 포함은 “배제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a dubious triumph of inclusion)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와 타인이 정당하게 분리되고, 결합하여 정체성을 형성하는 “구별”(differentiation)과 “배제”(exclusion)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잘 “판단”(judgement)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배제하려는 인간의 욕망과 맞서 싸우면서 배제를 영속화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자아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자아가 어떤 중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있다. 즉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아(갈 2:20)가 그의 대안이다. 바로 “중심이 재설정된 자아”(the self and its center)를 지닌 자이다.

배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거에 의한 배제, 동화에 의한 배제, 지배에 의한 배제, 유기에 의한 배제, 언어와 인식작용을 통한 상징적 배제, 물질의 탐욕에 의한 배제, 마음의 욕망에 의한 배제 등이 다양하며, 이것들은 증오, 분노, 피해의식, 모멸감, 혐오감, 적대감, 무관심을 동반한다. 또한 배제는 근원적인 죄와 연관되기보다 오히려 무고함을 꾸며낼 수 있을 정도로 “다이나믹”하다(the anatomy and dynamics of exclusion). 현실적으로 인간은 악에 폭 젖어 있는 세상에 살면서 서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자신이 무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해자와 희생자가 발생한다. 가해자의 “무죄” 논리는 자기의 잘못을 부인하며 자기 행동의 도덕적 의미를 재해석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고 “조작”한다(contrived innocence). 그러나 희생자 또한 무죄할 수 없다. 희생자 역시 갈등과 폭력의 본성의 뒷에 걸려들어 그의 마음과 행동에는 미움과 적개심, 복수심이 자리잡게 되며, 결국 그들의 무죄함을 빼앗겨버리고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가해자가 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된다.

이렇게 가해자와 희생자는 모두 역누를 수 없는 악의 힘을 지닌다. 이 힘이 지배를 지향하고 그 지배가 목적이 될 때, 이들은 서로 타자를 배제한다. 이러한 “배제의 힘”(the power of exclusion)은 제도적인 동시에 영적인 초인격적 체제의 작동방식 전방에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아의 구조 안에 배제의 논리와 공명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자아의 구조 자체에 정체성을 향한 욕망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욕망은 자아의 정체성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한 타자와의 필수적인 분리가 타자를 희생시키고 정체성을 주장하려는 배제로, 나아가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변질되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배제의 체제와 자아의 배제적 성향 사이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볼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대안임을 역설한다. 바로 ‘성령의 힘’이다. 성령이 자아의 요소로 들어가셔서 자기를 내어주는 자아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빛으심으로 자아의 중심을 해체하시고, 그 의지를 자유롭게 하셔서 성령의 힘인 포용으로 배제의 힘에 저항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연약한 자아의 요소 안에 새로운 포용의 세계가 처음으로 창조된다(고후 5:17). 자아가 무력 함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조 안에서나, 문화 안에서나, 자아 안에서, 배제의 체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력해 보이는 성령의 힘 덕분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볼프는 모든 인간이 타자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예시하는 우리의 이야기로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를 가져온다(Cain’s assault). 이 이야기의 위대함은 배제하는 가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과 함께, 희생자가 갖게 되는 배제라는 사슬의 첫 고리인 분노로부터 보호하는 표지를 주셨다는 데 있다. 이 표지는 가인을 행악자로 낙인 찍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재적인 희생자가 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였다. 가인은 보호받았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가인을 끌어안으실 것이다. 그리고 가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기 시작할 때에만 치유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3장에서 볼프는 “포용”(embrace)’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배제로 이어

지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라는 양극성의 논리를 극복하고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질문한다. 그는 인간이 타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에는 적대감(상극)의 위협이 상존하지만,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인류를 자신과의 교제 안에서 받아들인 일이 그 모범이 된다고 말한다. 배제가 포용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계기가 되는 ‘회개’, ‘용서’, ‘자신 안에 타자를 위한 공간 마련하기’, ‘지역의 치유’는 포용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우선 회개는 가해자나 희생자가 모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서 정말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회개는 죄책, 신념, 정당화, 이데올로기화, 반목을 영속화 하는 경향으로부터 “모호한 자유”(the ambiguities of liberation)가 아니라, 사랑을 우선하여 자유하는 참된 회개를 말한다. 또한 우리는 “거대 관념(거대 내러티브)”으로서 최종적인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adieu to the grand narratives),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얻어낸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들처럼 종교를 사회, 경제, 정치로부터 분리해내어서, 억압의 옛 질서를 영속화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마음과 태도가 변화해야 하는 죄의 신학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압제하는 이와 압제 받는 이들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볼프는 “회개한다는 것은 죄된 가치와 관행의 유혹하는 힘에 저항하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게 하는 것을 뜻한다”는 논의(Gerd Theissen, 1995)에 동의한다. 희생자가 회개한다는 것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조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가치, 싸우는 수단을 압제자가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회개는 희생자에게 능력을 주고 압제자에게서 능력을 빼앗는다. 회개는 희생자들이 압제자들을 모방하거나 비인간화 하는 것을 막아 줌으로써 희생자들을 인간화 한다. 회개는 결코 지배질서에 대한 묵인이 아니며, 옛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라는 피난처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옛 세계의

변혁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난 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압제하는 이와 압제 받는 이들 모두에게 회개하는 “청결한 마음의 정치”(the politics of the pure heart)가 없다면 모든 해방의 정치는 자손의 정체성 안에 복수를 새겨 넣으며 제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런 회개를 할 때 두 번째 단계인 용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용서는 쉬운가? 기독교 전통에서 참된 회개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어려운 것처럼, 용서 역시 만만치 않다. 인간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방어하고 정당화하며, 남을 공격하고 대적한다. 특히 희생자에게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보상받지 못한 고통에 대한 분노와 인과응보라는 도덕률의 정의에 위배된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용서는 정의에 근거한다. 다만 용서는 죄책과 형벌이 영원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정의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대체하지 않는다. 용서는 정의에 대한 확신을 초월하는 “창조적 불의”(creative injustice)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의 실천”(the practice of forgiveness)을 할 수 있는가? 볼프는 저주 시편의 중심 메시지에서 그 대안을 찾는다. 용서의 실천은 분노를 꺼내 놓아야 할 자리가 하나님 앞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 용서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분노를 꺼내 놓고, 불의한 적과 복수심에 불타는 미움과 가득 찬 배제의 의지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빛에 비추이는 것이다. 용서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의미를 궁극적으로 상징한다. 그리고 원수를 배제하며 자신을 죄인의 공동체로부터 배제하는 이중적 배제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불의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용서로 바뀌며, 용서는 다시 모두를 위한 정의를 찾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어서 볼프는 배제와 포용 사이의 경계선인 용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배제가 만든 상처를 치유하며 적의라는 분리의 답을

허물없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리와 중립적인 공간을 평화의 사권으로 회복하고자 한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도바울의 말씀처럼(롬 5:10), “십자가”(cross)는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며, 하나님 자신 안에 공간을 마련해두고 원수에게 들어오라고 초대하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기 비움심과 타자를 받아들이심은 세상 속으로 옮겨진 “삼위일체”(Trinity)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포용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우리 안에 “타자를 위한 공간”(space for the other)을 마련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삶이 된다. 그리고 “성만찬”(eucharist)을 행할 때 우리는 이것을 재연하며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회개하고 용서하며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후에,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해지기를, 완전한 화해와 평화가 완결되기를 바란다면(paradise), 가장 어려울지도 모르는 마지막 단계가 있다. “잊어버리기”(forgetting)이다. 이것은 특정한 종류의 잊어버림이며, “종말론적 잊기”(eschatological forgetting)이다. 잠시동안 회개와 변화를 위해 고통스럽지만 “기억해야 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the affliction of memory). “기억하기”와 “기억하지 않기”는 역사적 기억이라는 틀 안에서 과거를 재구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서로 얽혀 있는 두 방식이다. 과거에 대한 구속이 없이는 최종적 구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물이 새롭게 창조될 때 옛 것이 다 지나가되, 그것에 대한 기억까지도 폐기될 때 비로소 구속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중요했던 “기억하기”는 언젠가 우리의 상처와 당한 악행에 대한 기억을 잊게 할 구속의 소망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지금 기억하는 것(창 42:21-23, 44:27ff)은 그 때 기억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한 인 것이다(창 45:14-15). 요셉의 이야기처럼.

이제 볼프는 비로소 포용이라는 문제를 다룬다. 포용이란 무엇인가? 그는 “포용의 드라마”(the drama of embrace)’라는 은유를 사용하면서, 포용이 네 가지 필수적인 움직임을 구성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것은 타자에게

손을 내밀고 자신 안에 타자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었음을 알리며 초대하는 “팔 벌리기”(opening the arms), 자신의 욕망을 지연시키고, 타자가 팔을 벌리기를 “기다리기”(waiting), 타자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자아 안에서 타자의 존재를 느끼고 타자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느껴지게 만들며, 타자성을 타자성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그 일부를 계속 변화하는 자아의 정체성 안에 받아들이는 “팔 모으기”(closing the arms), 그리고 다시 타자의 타자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타자를 놓아주는 “팔 벌리기”(opening the arms again)로서, 자아와 타자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상징한다.

또한 그는 포용이 사회적 삶의 규제와 관련된 “계약”과 “언약”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어떻게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지에 대해 논한다(contract, covenant, embrace).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관한 신학적 성찰에서 본래의 언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새 언약’임을 강조한다. 새 언약은 십자가와 언약 사이의 관계, 즉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류가 깨뜨린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즉 새 언약이란,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는 인류를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는 것이며,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새 언약은 적대감이라는 조건 아래서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는 방식이다. 따라서 포용은 언약의 내적 양상이며 언약은 포용의 외적 양상이 된다. 이제 볼프는 3장의 마지막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두 팔을 벌리신 하나님 아버지”(the open arms of the father)’의 이야기(눅 15:11-32)로 포용의 신학을 마무리한다. 아버지는 고정된 규칙과 안정된 정체성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관계에 집중한다. 하지만 규칙과 질서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질서를 파괴하기보다 계속 재조정함으로써 그 질서가 배제의 질서가 아니라 포용의 질서가 되도록 지켜 가신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아 안에 타자의 타자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범죄한 타자에게 돌아오라고 초대하며, 그들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환대의 조건을 이루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는 사랑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3. 정의, 진실, 그리고 평화

볼프는 2부에서 우리 사회와 문화가 지향해야 할 3가지 중요한 가치인 정의, 진리(진실), 평화의 문제에 대해, 그것을 교란하는 억압, 기만, 폭력의 문제와 함께 다룬다. 그는 먼저 정의의 문제에 있어 ‘정의란 무엇인가?’를 명확히 규명하기보다, 다원성과 적대감이라는 상황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무엇이 정의로운가? 누구의 정의의 말인가? 어떤 정의의 말인가? 등등 정의가 “충돌하는 정의”(justice against justice) 문제를 3가지 방식으로 검토한다. 우선 정의가 하나라는 보편적인 주장으로서 “하나의 그리고 유일한 정의”(the one and the only justice)는 다른 정의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다음으로 정의는 많은 이름을 지닌다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주장으로서 “많은 이름, 많은 정의”(many names, many justice)가 있지만, 특수성과 차이를 연결시키므로 불의에 맞서기 어려움을, 그 다음으로 정의를 전통 안에 위치시키는 공동체적 주장으로서 “전통 안의 정의”(justice within tradition)는 한 전통이 다른 전통에 대해 승리할 때에만 해결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있는 동시에 세상 안에 있으므로, 성경적 전통의 세계와 자신이 속한 문화적 세계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첩”(overlapping territories)에 살면서, 전통이 만들어 낸 다양한 사고와 행동의 자원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즉 전통과 상호 연관된 “기본적인 헌신들”(basic commitments)을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점검하고 재형성하여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차이”(difference)에 대해 타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헌신들”(commitments)이 지닌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는 ‘이중적 보기(double vision)’가 필요하며, 이렇게 할 때 “정의”(justice)가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 이것은 수로보니계의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실천이었으며

(마 15:21-28),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아 안에 경건치 않은 타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시며 두 팔 벌려 그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실천이었다. 또한 사실 정의 자체는 서로 포용되지 않는 한 불의로 남으며, 이중적 보기를 실천하려는 동안은 정의를 추구하려면 불의에 맞서 싸우기 어렵다(seeking justice, fighting injustice). 따라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과 타자를 포용하는 것”(seeking justice, embracing the other)으로서 정의에 대한 합의는 타자를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으며, 포용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정의도 있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포용은 정의(justice)의 한 부분이며, 정의의 내용 그 자체를 만드는 사랑인 것이다.” 포용의 은총은 정의라는 관념의 필수 요소이며 완벽한 정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다. 이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참된 정의는 언제나 포용으로 가는 길 위에 있게 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함께 우리의 개인적,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변형하여 공유하게 될 뿐 아니라, 타인에 의해 분명 풍성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쯤 정의는 포용에 이르고 뒤로 물러날 수 있을까? 볼프는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의 불의를 배경으로 오순절의 정의를 성찰한다. 오순절 사건은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다. 그는 바벨의 불의로 인한 혼란과 흩어짐은 최종상태가 아니었으며,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어 문화적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질서를 가져오게 되는 오순절의 정의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즉 오순절 날 각자 “모국어”(native languages)로 말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충만하게 하신 성령으로 “재산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shared possessions) 보게 되는 사랑 안에 있는 정의, 즉 포용과 구별할 수 없는 오순절의 정의로 이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볼프는 “진리(진실)”의 문제를 “기만”과 함께 다룬다(deception and truth). 먼저 그는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축배”를 들 수 있겠지만(a toast to the past),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 지, 그리고 과거의 무엇을 기억하는 지, 그 기억으로 무엇을 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는 “반론의

건배”(a counter toast)를 대조한다. 그리고 그는 진실과 기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억과 역사’를 연결시키면서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지, 그리고 그 기억의 사회적 의미와 도덕적 전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한다.

그는 역사에 대한 근대적 접근이 객관성과 진리를 추구하여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하고”(to say it the way it really was), “사실적 진리”를 세우려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버릴 수 없기에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잘못된 낙관론”을 품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또한 현대적 포스트 모더니즘적 접근은 진리라는 관념 배후에 있는 권력의 표현들, 즉 “진리를 생산하는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체제들”(regimes of truth)을 폭로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폭력을 왕좌에 올리는 ‘권력의 진리’로 귀결되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도 볼프의 최종 대안은 “이중적 보기”(double vision)이다. 진리를 보고 듣기 위해서 여기로부터의 나의 관점과 거기로부터의 타자의 관점을 오가면서 바라보는 것이다.

볼프는 타자를 포용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진리도 없을 것이며, 진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타자와 공동체를 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진리”를 위해 “포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truthfulness and embrace),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진실과 신뢰할 수 있는 진리 없이는 공동체가 성립되지 않는다(truth and community). 또한 진실은 공동체를 지향하고 지탱하지만, 기만(거짓말)은 공동체를 파괴함을 강조한다. 진실을 말하고 행하는 것은 공동체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은 진실을 말하고 행하는 것이다. 이에 볼프는 “권력에 맞선 진실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며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실례로 든다(Jesus before Pilate: truth against power). 예수님과 가이파, 빌라도의 만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진정한 자유란 진리와 비폭력에 이중적으로 헌신한 열매라는 것이다(truth, freedom, violence). 나 자신의

자아보다 진리(진실)가 중요하고, 타자의 자아가 나의 진실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볼프는 자유롭고 진실한 삶으로써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진리의 증인이 될 것을, 기만과 폭력에 가담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타자를 끌어안는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램으로 이 장을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볼프는 폭력과 평화의 문제를 다룬다. 진리와 정의의 통치가 부재한 통치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crucified messiah)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승리하신 후 “백마 타신 이”(rider on the white horse)와 더불어 행진하는 그의 군대가 되고 싶어한다. 이제까지 “폭력에 맞서는 근대의 합리적 이성”(reason against violence)과 관료적 문명으로부터 평화는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갈등에 종교적 상징을 끌어들이며, “전쟁하는 사람들”(warring peoples)은 그것을 무기로 활용하려 하고 자기들의 “호전적인 신들”(bellicose gods)이 자기들을 위해 싸우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이에 볼프는 기독교의 천국이 지옥과 구별될 수 없으며 기독교는 최종적 진리와 정의의 실행을 가장한 “우주적 테러”(cosmic terror)를 행한다고 비판하는 현대 사상가 질 들뢰즈의 주장을 검토하며 문제를 제기한다. 그의 질문은 ‘기독교 신앙이 진리와 정의에 관한 판단을 긍정하면서 폭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 이다. 그는 폭력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폭력과 백마를 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는 폭력이라고 말한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breaking the cycle of violence), 희생양 기제를 폭로한 것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위한 예수님의 싸움의 일부이며 기만과 불의의 사람들을 끌어안은 하나님의 포용이었다. 한편 “백마를 탄 자”(the rider on the white horse)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는 폭력이라면 그것은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불의에 분노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 기만, 폭력의 공범이 되시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님께

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만일 악을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테러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두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강력한 끌어당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이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고 참으신다. 그러나 언젠가 결산의 날이 와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무고한 이들에게도 큰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이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고한 이들의 고통은 지속되도록 내버려두어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의해 구속되기를 거부하는 혼돈의 세력에 대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피조물의 본래적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폭력적인 이들에게 폭력을 가하신다. 이 심판은 고통 당하는 이들에 대한 구원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기만과 불의와 폭력을 중식시킴으로써 정의와 진리, 그리고 평화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장차 올 세상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끌어안기 위해 폭력을 감당하신 바로 그분에 의해 통치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폭력에 대한 인간의 역할에 침묵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방할 의무보다 더 앞서는 의미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을 의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되게 할 의무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칼을 들고 백마 탄 자의 깃발 아래 모여서는 안되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인가? 칼인가?”(the cross or the sword?)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하는 폭력에 대한 태도이다. 볼프는 이 책 마지막에서 한 번 더 “전쟁과 평화의 가능성”(prospects for war, prospects for peace)을 상기시킨다. 그는 시지푸스(Sisyphus)의 돌을 평화에 비유하며, 전쟁의 가능성이 평화의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음을 비판적으로 말했던 한스 엔첸스베르거(Hans M. Enzensberger)의 책을 소개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성경적 비전이 훨씬 더 희망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대조시킨다. 즉 이리와 어린 양이, 젓 먹는 아이와 독사가,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 그리고 악인이 함께 사는 우리의 세상에 평화의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처음이자 끝이 되실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일이 평화라는 돌을 밀어 올리는 일보다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당부하신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마음을 굳게 하며 복수의 충동에 사로잡히기를 거부하고 폭력의 순환을 끊어야 한다. 비록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폭력을 막기위해 어떤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 십자가를 따르는 대신 전쟁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4. 나가는 말

이 책의 결론을 대하면, 마치 이새의 즐기에서 나온 ‘한 싹’과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위에 여호와와 영이 임하시고 충만함으로 채우신다는 이사야의 선언이 울려 퍼지는 것 같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포도원이 불타고, 찢레와 가시와 같은 불평등과 부조리, 배제와 단절, 양극으로 나뉘는 싸움과 전쟁, 억압과 기만, 그리고 폭력, 적대감과 분노, 복수의 갈등은 악순환을 거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왕의 통치가 우리에게 공의와 정직, 겸손과 성실로 회복된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그 날을 다시금 꿈꾸게 한다.

또한 이 책의 여운은 자아 안에 타자의 타자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범죄한 타자에게 돌아오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환대의 조건을 만드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 하시며, 우리에게 결코 파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두 팔 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한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규칙과 질서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고정된 규칙과 안정된 정체성에 집착하지 않으신다.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관계에 집중하시고 끊임없이 재조정하신다. 그리고 그 질서가 배제의 질서가 아니라 포용의 질서가 되도록 지켜 가신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포월적 임재(抱越的 臨在, com-transcendental presence)를 기대하고, 온전한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연약한 삶에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도록 초대받는다.